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3년도 시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1. 다음 사례에서 손해사정사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과 그 조사방법 및 보상 처리 시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 (25점)

<사고발생경위>

2023년7월1일 16시쯤 #1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함)와 #2승용차(이하 2차량이라 함)가 일반도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정상운행 중 1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량의 우측부위로 2차량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상황>

피해자는 1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병으로서(남, 당시 만17세, 고교생), 경추염좌의 병명으로 한 달간 한방병원에서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을 입었다.

<운전자>

1차량의 운전자는 병의 누나 을(당시 23세, 대학생)로서 무면허운전 중이었으며, 2차량의 운전자인 정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적격운전자이긴 하나 사고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을은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사항>

1차량은 병의 모친 갑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2023년5월1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년)된 상태이고, 2차량은 B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2022년9월1일 책임개시, 보험기간 1년)되어 있다.

(뒷면 계속)

2. 과실상계의 법리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의 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타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의 ‘무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다른 자동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5. 다음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사고발생사항>

갑은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행을 가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을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정비업체의 직원 병이 수리 후 동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인(갑·을·병과는 인적관계 없음)을 치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계약사항>

갑은 A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I에 가입하였다.

6. 최근 도입된 ‘경상환자 대인배상II 치료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시오. (10점)